

한 남아에 발생한 자의적 습관성 고관절 탈구의 치험예 보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문명상 · 선두훈 · 오영기

-Abstract-

Voluntary Habitual Hip Dislocation in a Child

Myung-Sang Moon, M.D., Doo-Hoon SUN, M.D., and Young-Kee OH,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 Seoul

Voluntary habitual dislocation of the hip is very rarely reported in children, and only 13 cases have been reported in the literature. We add a new case in a 5 year-old boy. The boy did not have previous history of trauma, skeletal and/or soft tissue anomalies, nor known connective disease. He was treated by intertrochanteric varus-inward rotation osteotomy of the affected hip on February 25, 1985 and was followed until January 11, 1993. Postoperative convalescence was uneventfully successful, and the hip developed well without any obvious dysplasia at the latest follow-up.

Key Words:Dislocation, hip, Voluntary, habitual, child

서 론

소아에서 고관절의 자의적 습관성 탈구 (Voluntary habitual dislocation)는 외상, 그리고 선천성 이상 또는 결합조직 이상으로 인한 관절의 이완 또는 골 이형성등에 의하여 일어나는 고관절 탈구와는 달리, Iwamoto 등에 따르면 13예가 보고되었을 뿐이다. 이 습관성 고관절 탈구는 보통

편측성으로 일어난다고 하고, 문현상 보고된 양측성 인 예는 3예에 불과하다(Iwamoto et al, 1989). 저자들은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보고가 없는 고관절의 자의적 습관성 탈구환자 1예를 보고한다.

증례 보고

이 5세의 남아는 병력상 자의적 그리고 습관적으로 우측고관절을 내전내선 굴곡시켜 소리를 내게하

여 왔다고 하나, 별로 불편을 느끼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며, 보행도 정상이여서 부모가 큰 주위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초진전에는 부모들 보기에 우고관절에 움직임이 이상하게 보여 진찰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초진시의 이학적 검사상 특히 우측 고관절을 굴위로 하여 내전 내선시 탈구가 아무 저항 없이 일어나고 외선, 외전, 신전시 정복이 됨을 촉지할 수 있었다. 우측 고관절의 탈구를 확인하기 위해 굴위, 내전 내선위와 신전, 외전, 외선위로 유지하게하고,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탈구 및 정목을 확인하여, 전자부절골술식을 정하는데 참고하였다(Fig. 1A, B). 1985년 3월 4일 우대퇴골 전자간부 절골술을 실시하였으며, 절골후 원위골편을 내전, 내선위로하여 골편을 “ㄱ”자 금속판으로 내고정하고 추가적으로 고관절을 신전위로 석고외고정을 실시 6주간 고정후 석고를 제거하고 고관절의 운동을 허용케하였다(Fig. 2, 3).

그 후 환자는 석고제거 한 달후에 거의 정상적으로 우고관절을 쓸수 있었고, 보행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는 고관절을 내전, 내선굴곡하여도 고관절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수술후 6년 5개월 사이의 비정기적 주적 동안 재발은 없었고, 우측고관절의 방사선사진상 약간의 치골내반(Pubis varus) 소견을 나타내나, 하등의 운동장애와 보행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3).

Fig. 2. A radiograph taken 6 weeks after osteotomy showed well reduced hip.

고 찰

자의적 습관성 고관절탈구는 아주 드물다. 문헌에 의하면 13예가 보고되었고, 이들 중 3예 만이 양측성이 였다한다. 이들의 남녀비는 4:9여서 주로 여아에서 발생하였고, 편측성인 경우 9명 중 8명에서 우측 고관절에 발생하였다고 한다. 저자들의 예는 남아였으나, 역시 우측에 발생하였다. 모든 보고예는 10세이내 였고^{1,2,3,4,5,6,7,8)}, 그들에서 탈구에 따른 탄발음(clicks)이 들였고, 고관절의 굴위, 내선에 의한 탈구의 야기, 진공형상(vacuum phenomenon) 등이 있었다.

이미 보고된 예들중 9예는 통증을 갖지 않았고, 7예에서는 선천적 관절이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

Fig. 1. A, B. Radiographs of the hip in inward rotation and adduction (A) showed the luxated right hip, which could be reduced in external rotation and abduction position.

Fig. 3. A-C. Radiographs taken 7 years and 10 months after osteotomy showed the well reduced and developed right hip in neutral(A), inward rotation (B) and external rotation (C) positions.

였다. 저자들의 예에서도 선천성 관절이완은 없었다. Iwamoto 등(1989)⁵은 방사선상의 고관절의 진공현상(vacuum phenomenon)이 감별진단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골이형, 선천성 기형에 합병한 관절이완, 또는 결합조직 이상에 속발한 탈구예에서는 진공현상이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저자들의 예에서도 이 진공소견이 보였다. Iwamoto 등은 탈구기간이 순간적이여서 방사선학적으로 탈구상태를 포착하기 힘들어 연속촬영법(Cineradiography)을 써서 탈구를 포착했다고 하였으나, 저자들의 예는 수동적으로 탈구를 야기시켜 촬영하므로서 탈구상태를 포착할 수 있었다. 이 병의 발생기전으로 몇몇 보고자들^{3,6}은 비구 후방의 골화결합을 암시하였으나, 본 증례예에서는 이를 확인치 못했다. 타저자들은 관절낭에 이완이 있어, 관절낭을 중첩 봉합하므로서 탈구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관절낭의 이완은 습관성 탈구에 뒤따른 결과로 풀이 될수 있겠다. Iwamoto 등은 심리적 인자도 인대 및 근육이완과 함께 습관성 탈구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저들의 예에서는

이를 확인치 못하였다. 보고 예들에서의 치료법을 살펴보면^{1,2,3,6,8)}, 2예에서는 관절낭의 중첩봉합을, 3예는 부목을, 6예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고, 한 예에서는 치료에 관한 기술이 없었다. Iwamoto들과 Keret⁶들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 수술요법이나, 부목고정법은 필요치 않고, 환아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탈구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한다면, 탈구는 자연히 치유되어 간다고 하였으나, 저자들의 예는 이미 5세 남아로서 심한 탈구가 일어남으로 관절적으로 치료할 수 밖에 없었다. 이예에서는 절골술후 석고외고정만을 실시하였고, 관절낭의 중첩봉합은 하지 않았다.

REFERENCES

- 1) Ahmad, B. and Harres, M.B. : *Habitual dislocation of the hip*. Clin. Orthop. 175 : 209-212, 1983
- 2) Brody, A.S. and Scott, R.D. : *Voluntary posterior hip dislocation in Children*. J. Bone

- and Joint Surg.* 57A : 716-717, 1975.
- 3) Golburg, I and Rousso, I : *Voluntary habitual dislocation of the hip*. *J. Bone Joint Sug.* 66A : 1117-1119, 1984.
 - 4) Hukkanen, E.S. and Sulamaa, M. : *Recurrent dislocation of the hip : a case report*. *Acta Orthop. Scand.* 42 : 58-62, 1971.
 - 5) Iwamoto, Y., Katsuki, I. Eguchi, M., Oishi, T., Sugioka Y. and Sasaki, K. : *Voluntary dislocation of both hips in a child*. *Internat. Orthop. (SICOT)*. 13 : 283-285, 1989.
 - 6) Keret D. and Reis, N.D. : *Case report : Voluntary habitual dislocation of the hip joint in a child*. *J. Pedia. Orthop.* 6 : 222-223,
- 1986.
- 7) Mastromario, R. and Impagliazzo, A. : *Voluntary dislocation of the hip(a case report)*. *Ital J. Orthop. Trauma*. 5 : 219-224, 1979.
 - 8) Pettersson, H., Theander, G., and Danielsson, L. : *Voluntary habitual dislocation of the hip in children*. *Acta Radiol. Diagn.* 21 : 303-307, 1980.
 - 9) Tokekowa, Y., Okubo, K., Nagafuchi, T., Murata, K. and Moriyama, M. : *Voluntary dislocation of the hip in a child (in Japanese)*. *Orthop. Surg. (Seikeigeka)* 38 : 1592-1595, 1987.